



진구렁렁이 속 못난 이놈을 주님은 항상 돌보아주셨다

실수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언지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회

그 후 간통죄로 복역 중인 남편 있는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며 "아이 둘 다 버리고 도망치자"고 유혹하였다. "그건 안 된다. 애를 버리고 도망치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말렸는데, 이 여자가 가끔 찾아와서 만났는데, 이게 들롱이 나게 되었다. 부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초저녁에 야산에 생매장 시킨다면서 봉고차에 태워서 끌고가는 것이었다. 땅 속에 산 채로 묻힐 것을 생각하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사형수 심정을 조금 느끼게 되었다. 남편 측 형제들이 간통죄로 고소한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약점을 잡아 남편과 헤어지게 하려고 버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보고 이 여자와 어린 아기 2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라고 요구하기에 거부하자 야산에 생매장을 시킨다고 겁주고, 무서운 광대 주먹맛을 보게 된 것이었다. 한번은 약력 사기대출업자에 이용당해 초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승용차에 끌려 다니면서 주먹질과 발길질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얻어맞아 통통 붓고, 오른쪽 눈알이 구뚫발길질에 정통으로 맞아 피가 질질 흘러내리고, 코뼈가 금이 가고, 여관에 3일 동안 감금되어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못난 나쁜 놈을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다. 식당 일을 할 때인데 배달 다닐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면 답답하고 폼도 안 나고 해서 거의 안 쓰고 다녔다. 하나 한 여름철에 겨울용 헬멧을

쓰고 그릇 수거하러 나간 것이다. 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한 건데, 그릇 수거하러 가는 운전 도중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다. 다행히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잠든 채로 100미터 정도 나아가다 도로변 받침대를 들이박고 몸뚱이는 10미터쯤 날아가서 도로 길가에 쓰러진 것이다. 물론 잠든 상태라 아픈 것도 몰랐는데 캄캄한 어둠속에서 깨어나면서 누군가 건드리는 느낌에 눈을 떠 보니 쓰러져 있고, 헬멧은 5미터 앞에 뒹굴고 있었다. 눈을 뜨고 보니 가슴팍에 통증이 오기에 "왜 내가 누워있냐?"고 깨우는 분에게 물어보니 기가 차다는 듯이 "사고 났다"고 말해 주었다.

재입문하였지만 죄악의 생각에서 2년간 못 빠져나와

2008년 8월 승리제단에 다시 온 후로 주님께서 목숨을 여러 번 살려 주신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도 나름대로 이긴자가 되려만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승리제단 소식을 접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문득, 다음(DAUM) 사이트에서 승리제단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 보니 김갑용 승사님이 운영하는 승리제단 카페가 있었다. 신기하고 기쁘기도 해서 회원 가입하고 말씀 동영상과 자료를 자주 보게 되면서 9년 동안 잘못



무궁화 관현악단에서 복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효진님

된 상식 판단으로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되었다. 여러 번 금연 시도를 해 봤으나 실패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금연 의지가 강해지고 구도 길을 가려면 당연히 금주, 금연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맺어놓은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인정, 동정이 많았던 탓에 다시 승리제단에 가보고는 싶었으나 쉽사리 결단을 못하고 끄덕거리다가 회사가 목포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 가는 통에 올라오게 되었다. 안산에서 삼층 공장 소식

궁금해서 역곡까지 몇 차례 오곤 했지만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번이고 망설였다. 드디어, 2008년 8월 승리제단에 다시 들어와서 21일 교육을 받게 되었다. 21일 3차례 받아야 성도로서 인정해 준다는 엄한 방침이 있었다.

그러나 새 출발하는 21일 교육은 편하지 않고, 스스로 하루하루를 용돈 벌며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인명숙 승사님과 김갑용 승사님의 도움도 받으면서 묵묵히 교육을 마치고, 삼층 공장에서 일하는 행운을 맞게 되었다. 21일

교육 중에 삼층 공장 주차장에 많은 자전거 오토바이를 보면서 '예전과 달리 이제 삼층 공장 사람도 출퇴근하면서 신문배달, 우유배달 등 하면서 지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새벽일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옛날과 달랐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면서 쌓아놓은 죄가 나를 괴롭혔다. 쉬는 점심시간, 또는 시간 시간이 세상에 몰들었던 마음 생각 생각이 휘몰아쳐오고 정신 못 차리면 미쳐 버릴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밤이면 목을 조르는 듯하고 의식이 흐려지면 또 일어나 기도를 하면 깨어나곤 하였다. 이렇게 2년 정도는 괴롭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전도였다. 일과를 마친 후 인터넷을 하면서 우연히 다음 지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1년 8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종교란에서 질문 답변을 하다 보니 승리제단 교리와 체계를 늘상 보게 되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또 범죄하게 돼

3층 공장 일하면서 공장이 어려워져 돈을 벌지 못해서 물질적으로 보탬을 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 다단계 등 사업을 접하

다보니 신앙과 동떨어진 사람들과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죄악에 몰려가는 것이었다. 시간 시간 흘러가는 생각을 느끼면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내가 애를 쓴 만큼 유혹도 강해졌다. 예배를 제대로 안 보면 제단 나오는 게 싫어지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미귀는 자꾸 낙담을 주고, 너같이 죄를 지은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며 자책감과 자괴감을 주었다. 힘들 때에는 자살하고픈 마음까지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형제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점이다. 어떤 때는 신체 일부를 팔아서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사실 입문수기를 써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스스로 바보처럼 만들어가거나, 혹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루빨리 지옥을 떠날 길을 되새기며,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제단에 동지를 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거다. 하루빨리 실수에서 나온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승리제단 성도가 되고 싶다.*

정효진(49세) / 본부제단

제 36주년

승리절 행사

영생은 '나'를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도의 목적은 생명력의 확장이다

구도(求道)는 우울하고 그늘진 마음을 버리고 밝고 쾌활한 마음을 가지려는 몸부림이다. 밝은 마음은 왕성한 생명력에서 나온다. 구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주만물을 살리려는 치열한 희생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생명력이 확장된다. 구도는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투쟁이다. 승리의 마음은 생명력을 강화시킨다.

승리자란 '나'를 이긴 자이다

승리자란 도를 완성한 존재이다. 승리자란 나를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다.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음울하고 암담한 마음이 없고, 항상 쾌락 속에서 희열이 솟아난다. 당신이 만일 승리자가 된다면 슬픈 대신 기쁨이, 불안(不安) 대신 평안이, 나약함 대신 강함이, 불만 대신 만족이 마음속에 샘솟게 될 것이다. 그는 모든 고통을 던져버리고 끝 간 데 없는 희열의 삶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수준 높은 무궁화관현악단의 연주는 승리제단의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우리들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 가슴 뚫듯한 시간이었다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멜로디에 압도되는 무궁화합창단의 합창



사회자: 김정흠 승사

대구제단의 리준경 승사님, 부산제단의 김원철 승사님의 바쁜신 중에 준비하신 연주와 가락에 흥겹기도 하고 힘이나기도 했다



승리절 행사를 관람하는 중에 내린 이슬성신

좌측과 달리 사진 우측 하단에 내린 이슬성신 김갑용 승사 촬영



인류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기뻐하다! 찬양하다! 드디어 인류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전령이 이 땅에 출현하였다. 바로 1980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 숨기고 감추고 극비로 진행해 온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첫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6000년 전 하나님은 마귀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승리자 한 분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마귀의 비밀을 캐내어서 그 마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셨으며, 드디어 그 무기를 사용할 승리자 한 분을 갖고 다듬고 키워서 출현시켰다. 하나님의 첫 열매요 들깨 아담으로 오신 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과의 투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승리자는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한다

승리자 조희성 선생이 출현한 지 벌써 36년이 되었다. 승리자는 1981년 8월에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에 '승리제단'을 설립하여 영생의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하였다.